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 東友會報

1985年 5月 31日 第102號【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申益鍾  
인쇄인 韓萬洙  
편집부장 韓萬洙

東國大學校同窓會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기 26  
전화: (직) 267-8568 · 274-7449  
(교) 267-8131~9(465)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모번호 7500891

79星霜...

## 學問의 聖火 높이 들렸다



◇사진: 지난 5월 25일(석가탄신일)의 제등행렬 광경

開校 80주를 눈 앞에 둔 오늘, 우리 모두 自問해 보자-

### 나는 東國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난 5월 8일로 모교 東國은 개교 79주년을 맞았다. 1906년 민족적 수난기였던 舊韓末, 불교계 先覺者들이 教育救國의 건학이념으로 三寶의 淨財를 모아, 순수민족자본에 의해 創學된 모교는 79個 星霜을 쌓는 동안 수많은 英才를 배출하면서 「民族을 위한, 民族에 의한, 民族의 大學」으로서 그 使命을 다 해왔다.

이제 6萬을 헤아리는 우리 同門은 各階各層에서 저마다 東國의 功지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해 준 母校, 인생의 황금기를 가꿔준 東國을 위해서,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모교의 80주를 눈 앞에 둔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에 自問해 볼 일이다.

＝歴代총장＝



權相老 初代(1953)



白性郁 2代(1953)



鄭斗石 3代(1961)



金法麟 4代(1963)



趙明基 5代(1964)



金東益 6代(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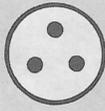
□ 교표의 변천 □



徐燉珏 7代(1972)



李瑛根 8代(1974)



明進學校



佛敎專修學校



中央佛專



東國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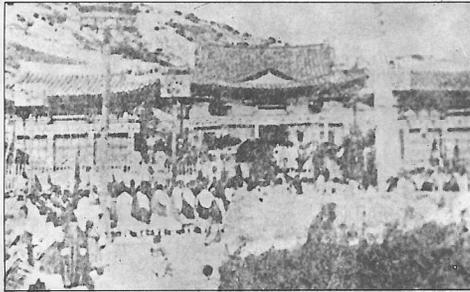


東國大學校



鄭在覺 9代(1978)

明進에서 東國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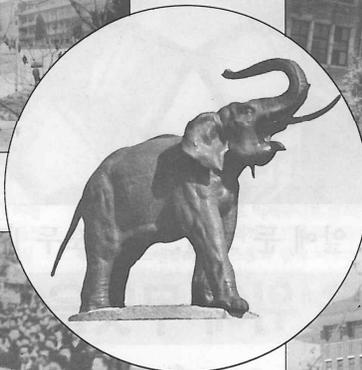
▲明進學校 1906년 현 창신국민학교자리에 설립. 초대 이사장에 洪月初, 교장에 李寶潭, 敎훈은 「慈愛修善」이었다.

▶ 惠化專門 1940년 6월10일부로 中央佛專에서 명진학교, 檀君의 종친과 함께 지금까지의 불교 전문대학에서 불교, 사회, 일반적 전문대학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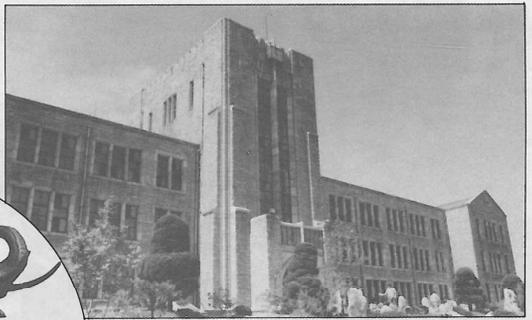


▼ 4.19서 앞장 당시의 데모로 盧熙斗동문이 散華했으며 30여명의 부상자를 냈다. 이듬해인 61년 모교 룸비니 동산에 東友塔건립.

◀ 皇建門



▲ 코끼리像



▲ 石造館 56년 12월20일 준공, 대학의 상징건물로 기능해 오고 있다.



▶ 慶州캠퍼스

나만의 보물을 우리의 보물로

# 校史資料를 찾습니다

## 모교 80周年 기념사업회 全同門 동참바라

모교 당국에서는 내년으로 다가오는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 동문을 대상으로 校史資料를 수집하고 있다.

80년의 장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에 비해, 막상 그 전통의 상징인 校史資料를 환란에 쓸릴 수 있는 校史資料의 설치가 아쉬웠던 실정을 감안, 전 동문이 「우리 집안의 보물, 東國인의 보물」 흔쾌히 기증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모교 80주년에 대비해 지난 83년 2학기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사자료실에 현재 中央佛專 曠시 校報·졸업증서·상장(張漢基분과대학장 기증) 등

1백50여점이 수집, 전시되어 있다.

◇접수 요령  
▲수집내용-제한없음 (東國79년에 걸친 史의 가치 있는 사진·서류·기념품등 모든 자료)

▲접수기간-제한없음  
▲접수장소-서울시 중구 필동 3가26 동국대학교 80주년 기념사업회 校史資料室

▲기타사항

①접수된 자료는 기증자표지와 함께 「校史자료실」에 영구 보관함.

②자세한 사항은 모교 校史자료실 (267-8131 交420-429)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第一東友會 정총 단체회비 30만원

第一東友會(회장-鄭赫)는 지난 5월11일(土) 오후 5시 모교 동구관 교수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鄭赫회장을 유임시키는 등 임원개선과 회 활성화 방안을 토의했다.

동회는 임원개선에서 초창기의 집중적 발전을 위해 임원 유임을 원칙으로 일부인원을 補選했으며, 앞으로 모교및 본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第一銀行계좌번호 90여명의 모임인 同會는 작년 4월 창립이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이날 단체회비 30만원을 본회 사무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개선된 동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鄭赫 (50경계·용암동지점장)

▲부회장-羅聖宰 (65상하·南山지점 차장) 林盛峯 (68경계·이촌동 대리)

▲감사-崔鳳鶴 (66상하·경일부자금융 서울사무소 소장)

## 새 회장 鄭鎮永 동문 산악회

### 전 동문대상 月例 山行개척키로

와남 (주) 社長

▲부회장-朴秀根 (모교 학과과장) 金文煥 (67동생·明進商社) 吳仁煥 (70경계·西遊여행사代表)

▲총무-金廣鎰 (74경계·부곡상호신용금고 감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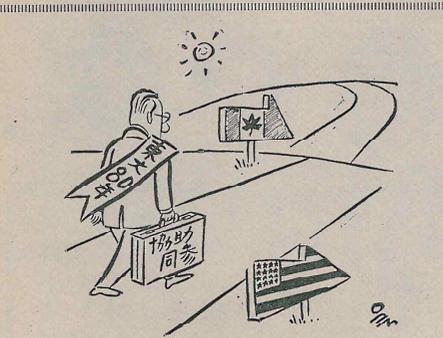
▲부회장-李聖宰 (65상하·南山지점 차장) 林盛峯 (68경계·이촌동 대리)

▲감사-崔鳳鶴 (66상하·경일부자금융 서울사무소 소장)



鄭鎮永 회장  
최근 사무실을 이친한 동회 吳仁煥동문의 西遊여행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이바 무인에서 동회는 오랫동안 회의를 풀며, 회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활발히 토론했으며, 특히 전통국인을 대상으로 월례 山行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의, 오는 6월16일 정 山行을 갖기로 했다. <9면 광고란 참조>  
▲회장-鄭鎮永 (62경계·동명

## 東友漫評 鄭雲耕



### 申국장 美·加支部 巡訪

#### 演映科 체육대회 18일, 신입생활영

演映科동창회 (회장-金廣鎰 모교 교수)는 지난 5월18일(土) 모교에서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를 열고,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히 했다.

이날 대회는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축구·배구·줄다리기·계주등 4개종목을 1회부터 26회 재하생까지 점·홍팀으로 편성(홍수기·홍팀, 짝수기·청팀) 실시되어 청팀이 승리를 거두

었다. 이어 다함양에서 파티가 벌어져 오후 10시 넘어까지 東國演映인의 단합된 면모를 파시했다.

#### 洛山寺해송 1백株기증 金銘善부회장 향나무도

母校 洛山寺원장의조정을위해 洛山寺(주지-진철스님)로부터 해송 1백그루를 기증받았다. 한편, 金銘善 (61경계·분북회 회장) 동문과 文明大 (미승과) 교수가 40년생 향나무 1주씩을 기증, 교정에 심어졌다.

## 美洲 7個지부 巡訪 유대강화·80周사업등 위해

申益炫 사무국장



L	A 지부
시카고 지부	트루이티 지부
뉴욕 지부	샌프란시스코 지부

개교80주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본부-해지부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회 申益炫 (72경계) 사무국장이 오는 6월6일 美洲의 7개 지부순방차 출국한다.

申국장은 약 1개월간 美洲 각지부를 순방하면서 최근 모교및 본회 활동상황을 전하고 아직 회기가 전달되지 않았던 트루이티 지부에 회기를 전달하는 한편, 해외 지부및 동문들의 활동상황을 생생히 취재해보고자 하며, 아울러 내년 사업에 해외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총무-韓敏洙 (79전산·사무전산부 내리)

▲감사-任明均 (82전산·사무전산부)

이었으나, 실무책임자 자신의 순방은 처음 있는 일이며, 본부-해지부 유대관계를 위해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부분까지 충실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申益炫국장의 渡美는 양 북 비행기표를 제공한 白鍾權 (65경문·삼합공대表) 동문과 美國內 순회비행권을 제공한 安重五 (65경문·나라합공대表) 동문에게도 감사하며, 아울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크게 힘입고 있다.

申국장은 오는 6일 出歐, L A-시카고-트루이티-워싱턴-뉴욕-캐나다-샌프란시스코를 차례로 들르고 오는 7월초 귀국할 예정이다.

▲총무-李聖宰 (54년·부산은평성)

▲부회장-金天壽 (57년·국민은평 부평장) ▲林忠煥 (59·공인회계사) ▲金在基 (60·주택은평 영남부장) ▲金銘善 (60·동진지류 사장) ▲金珍植 (61·태창유리社長) ▲金榮龍 (62·大字 전무이사) ▲朴坡亨 (63·신라교역 사장) ▲陳宗憲 (63·조흥은평 산지점장) ▲鄭奎完 (65·용암산인社長) ▲李濟坤 (68·스판드르 케미칼社長)

▲감사-林昌祐 (56·조흥은평 신사2부장) ▲鄭達烈 (58·효성물산 감사) ▲嚴鍾祐 (67·삼진면세社長)

▲지도위원-張志準 (61·국회의원) ▲金榮龍 (62·〃) ▲辛敬善 (63·〃) ▲朴建植 (66·〃)

▲사무국장-申國浩 (73·중대신문사 편집국장)

## 올들어 支會 9개 늘어

### 嶺北지부·城北區·嶺東동우회 창립

도 조직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각급단위조직의 신규창립및 기존조직의 사무국 등록 작업을 적극 장려, 지원해갈 방침으로 있다.

### 嶺北동창회 활동중

#### 회장 朴載權 동문

양양·속초·고성·인제지구 동문의 모임인 「嶺北同窓會」가 창립되어 활동중임이 파악됐다.

각급단위의 모임은 가져오면 위의 4개 支會는 지역간 유대강화와 전동국인의 결속을 위해 「嶺北동창회」를 결성하게 된다.

회원의 80% 이상이 敬愛동문인 동회는 앞으로 회원유대강화와, 함께 관광지역으로의 특성을 살려, 모교나산별장 후련대피동 행사에 적극 참여, 후배들을 격려·지원하기로 했다.

▲회장-朴載權 (61경계·元徽조선소代表)

▲총무-李昌福 (67경부·속초제일이용소代表)

### 성북구 동문회 創總

#### 회장에 李江秀 동문

성북구 동문회가 지난 4월 20일 풍년사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되었다.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갖고 있는 동문 30여명이 모인 이날 창총에서 동회는 앞으로는 우선 회원발달 작업에 공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동회는 회원자리를 순회하며 매일 모임을 갖기로 결정, 5월23일 한일정(성북서맛문)에서 2차모임을 가졌으며, 6월에는 金榮(63경의)동문 자택에서 모이기로 했다.

◇동회 초대 임원

▲회장-李江秀 (61법학·삼선2동장·94-0622)

▲총무-金光鎰 (69경행·풍년각代表·923-1188)

### 嶺東동우회 창립

#### 회장에 鄭장和 동문

서울에 거주하는 嶺東지방 출신 동문 22명의 모임인 「嶺東東友會」가 창립되었다.

지난 5월10일 시내 동심문시장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동회는 李龍俊(79경원·국회의원) 동문을 교무로 추대하고, 초대 회장에 鄭載和(57경치·전국은행연합회 사무) 동문을, 감사에 李煥雨(70경영·중앙인테리) 동문을 각각 선임하고, 앞으로 갖는 모임을 가지면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 經濟科임원 진학정

#### 총23명...막강陳容

경제학과 동창회 (회장-黃龍

## 본보 創刊 8주년

### 5월8일 '倍前의 정진, 다짐

本 「東友會報」가 지난 5월 8일로 창간 9주년을 맞았다.

1976년 5월 8일 개표기념일을 맞아 창간호를 낸 이래 9년동안 6만 東國인의 舞楛 역할을 해온 本報는 그간 多분발, 조직강화, 장기사업전개등 本會발전적 功적 기여해왔다.

지난 3월 지령 1백호를 맞아 증면·증부와 함께 보는 신문으로 탈바꿈한 本報는 현재 매월 말일에 12면을 (주소 2면은 2도인쇄) 발행, 주수가 분면할 동문 1만 5천여명에게 발송하고 교직원, 재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 輸出入銀行 동우회

#### 단출해도 모임 활발

수출입은행 동문회 (회장-洪

鍾寬·76경영·수출보험 1부 과장)는 지난 5월10일 동명陳炳石 (80경계) 동문의 결혼식후 모임을 갖는등 활발한 모임을 갖고 있다.

수는 저지만 12명이 불불출처였는 가족초빙부위와 견속력은 덩치 큰 지회 부원이었다고. (연락처-총무 李順煥·82경계·보현2부·753-8101호)

### 「行政學徒의 밤」

#### 29일 타워호텔서

행정학과 동창회 (회장-嚴龍雲·64년)는 지난 5월29일 후 7시 타워호텔 1층 「제이코비홀」에서 「제5회 行政學徒의 밤」을 열고 선후배간의 우의를 다졌다.

내년으로 80주년을 맞게 될 모교, 동국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모교이며, 동창회도 우리 모두의 것이다. 따라서 80주기법사업도 우리 모두의 榮耀를 모아 모두 同參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보는 각계 각층의 동문 9명과 전화인터뷰를 마친다.

<면접자주>

**신정중인 醫大·藝術대 등 설립되면**  
**金鎔貞** (59살학·모교기획실장)은 의과대학 및 불교종합병원 설립, 예술대학 설립 등 인가신청중인 속원사업들이 80주를 기해서 이뤄진다면 획기적 교세발전 가능할 것이다. 재단·학교·동창회·신도회 등 전동국인·불교인의 힘을 합치면 못이될 없다. 특히 興野要庵의 동문·實業界 동문 등 동창회의 적극적 후원을 바라마지 않는다.

니는 모교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金百經** (60정지·속조대佛運理事장)은 모교를 위해, 동창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아픈 자问到 할 말이 없다. 모교당국과 본부동창회에서 좋은 계획 세우시면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 끝으로 낙산별장이나 설악산등지로 세미나를 오는 모교 후배들에게는 연타이 당는대로 찾아가서, 격려하고 선후배의 유대감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동창회관 건립은 당연한 일」**  
**鄭大鎮** (63법학·세무사)은 80주정 도면동창회관은 당연히 건립되어야 한다. 특히 건축비용이 저렴한 요즘은 좋은 기회다. 무엇보다도 선후배가 서로 마음든든한, 동국인이라는 말

각계 동문 電話인터뷰

# 80周年사업 이렇게 하십시오

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게는, 결속력과 동우애가 밑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장학기금 및 교수연구기금 확충과, 법과대학의 독립동도 시급하다고 본다.

**교지확충 및 內實의 계기로**  
**趙在浩** (65불교·재단사무국장)은 의과대학·예술대학의 설립으로, 지성과 감성이 조화된 동국인을 배출했으면 한다. 또한 서울 본교의 교지확충 및 내실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80주년이 되어야 한다.

건학정신을 구원하고, 동국가족의 사기와 긍지를 진작하고, 빛나는 學統을

계승·발전시키는 일대전기가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

**발전일결과 弘報에 주력해 주길**  
**姜秉國** (68불교·동림산업 관리본부理事)은 오랜 역사에 비해 우독한 모습이 못되는 듯 싶어 아쉬우면

서 동시에도 동문으로서 자책해 본다. 재학생은 학구에 전념하고 동문들은 마교 읍몰이나라 직접행동으로 참여해야 하겠다. 또 학교당국에서는 內實에 만전을 기하며, 또 그 결과의 홍보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80주정사는 對外 과시보다는 對內의 실질적 도약을 이루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과 유대 강화에 좀더...」**  
**李春錫** (74정지·순천 OB백주常務)은 동창회관을 건립, 對外의 이미지 높이는 등, 또 회비의 캄라발행 및 증편과 함께 지방의 명예가 자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본부-지방의

유대강화에 좀더 주력해 주길 바란다.

**선봉에 있는 눈부신 비약을**  
**曹奎** (77경원 經大院동창회장)은 80년 정통에 걸맞는 명실단위 겸의 명문사학으로서 비약적 발전을 간절히 바란다. 의과대학등의 설립은 배늦은 걸음 있으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전국특수대학원 체육대학의 再開로 동국경원인의 긍지를 과시할 수 있기 바란다.

**「조직강화→동문결속→모교발전」**  
**朴奩春** (79경계·해태제과 인사과장)은 조직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문결속을 이룩하여 수 있을 것이다.

**새로 태어난 각오로 진취적 기상**  
**張滿翼** (83행정·수출입은행 심사1부)은 정통을 위해 안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각오로 진취적·장조적 기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불교계 및 재단측에도 보다 적극적인 발전의지가 아쉽다. 동창회관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거둬들이어서 6만 동문의 사랑방으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은행연혁**  
 1929년 7월 1일 「朝鮮貯蓄銀行」으로 창립한 第一銀行은 4室 16部 1課 1부속실 3영업부 33課 2담당의本店과 국내 14개 해외 11개 지점망, 그리고 1,370 여원의 순수자본금을 지닌 현실상부로서, 9천여 임직원이고 2백여 오빠로 모시는 「은행」이라는 구조 아래 수산·여신·내국환·외국환 및 부수업무등을 취급하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작년에는 최우수급을 기산상을 수상하는 등 은행 중의 선두주자의 역할을 굳히기 위해 매진 중이다.



鄭赫희장

## 「은행계의 으뜸 동우會 다짐」 「은행계 동문회 체육대회」 개최를



▲지난 5월 定總에서 鄭赫희장이 단체회비로 30만원을 본회에 전달하고 있다.

**◇第一東友會장립**  
 同行과 모교의 역사에 비해 동우회 창립은 84년 4월 6일 로 꽤 늦은 편. 그동안도 산발적인 모임은 있어왔으나 『각자의 업무에 바빠서 보니 본의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다』는 것이 지각생(?)의 변. 그러다가 회원의 반의상이 근무하는 사무전산팀을 중심으로 自 自 自(?) 이 되고, 선배들에 전달되어 마침내 작년 창립을 보게 된 것.

**◇활동상황**  
 창립이 늦은 대신 同會의 활동은 同行 내 다례학동창회들이 부러워할 만큼 활발, 日課한 支會로서는 드물게 지난 84년 「동

국인의 밤」行事시 본회 鄭在皓 회장의 유공 표창을 받을 정도.

동회의 2대사업목표는 장학기금 적립으로 모교 발전을 지원하고, 예경사 상부사조 등으로 동문간 유대 강화. 이를 위해 「先先정 後사업」의 원칙으로 매 분기마다 행원 5천원, 대리 1만원, 차장 1만 5천원, 지점장 2만원씩의 회비를 온라인으로 거출하고 있다. 이밖에 도 宋寶烈전주와 鄭赫희장의 특별찬조금으로 계속 기금을 적립해오고 있는, 뽕커들의 모임단체 탄탄한 재정을 자랑.

年 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동회는 지난 84년에는 제 2차 정기총회결 승인의 밤 행사들개

최, 외원수첩을 제작배부했으며 지난 5월 11일에는 모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오랫동안 東岳을 올라 모교의 발전을 실감하기도.

이번 총회에서는 후배 장학사업·운동부지원·후배 취업상담 등 동회 지원사업에 총력하기 위해 임원보선과 함께 의회개정등을 결의하고 또한 단체회비 30만원을본사무국에 전달한 뜻깊은 총회였다.

한편 동회는 본회사무국에 「은행계 동우회 상호 친목을 위한·체육대회」등의 개최, 同行 내 피과와 동문회가 작업협조 등을 요망하고기도.

**◇동문군향**  
 동회 고교인 宋寶烈(57경계)

동문은 지난 2월, 갑작스럽게 사에서 물러나서 무이사로열진, 회원들의 사기를 드높였다.

鄭赫희장은 모임 때마다 30분선이면 꼭 나타나, 지각하는 후배들을 당황하게 하는 「첼플랜」. 또한 동회 80여회원중 30여명을 차지하는 사무전산부 동문들은 은행업무와 온라인화 및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의미남부를 100%, 회의 참석을 역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후배를 아끼자, 선배를 믿고 존경하자」는 캐시프레이즈답게, 아주 마스한 東友愛가 흐르는 곳 「第一東友會」는 머지않아 「오빠가는 東友會」가 될것 같다.

<회원명단은 7면 참조>



宋寶烈고교인



羅聖奎부회장, 林盛峯부회장, 任明均가사, 韓敏洙총무, 任明均가사, 任明均가사, 任明均가사

# 발 전

신속하고 깨끗하게 신문을 제작해 드립니다

(주) 헤럴드인쇄

전화 273-3502·3503

# “우리집안에 東國인이 열둘이지요”

## 양친 佛心 인연...야구연승에 '살맛'

는 제도 자체가 모순이지만, 『어쨌든 현재도 아래서는, 동문을 특히 교직원들이 좀더 모교애를 발휘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

동문거리 모인 자리는 자연스레 재학시절 인화와 모교발전에의 바램으로 화제가 이어졌다. 『오랫만에 올라가 보니 학교 정갈 많이 발전했어. 우리 다닐때 콘서트 건물에서 책상도 없이 파퓰러에들 앉아서 수업받았는데...』 최고 선배인 韓昌燮동문의 회고.

朴大鉉동문이 받는다. 『장소야 본래 명당자리인데다가, 건물과

해 불교의식관제로 사용하지않던 졸업가운을 착용할수 있도록 한 주인공.

이밖에도 국가고시로 실시되던 학사자격시험 대비 특강을 전의, 모교의 학제들을 전국 4위로 끌어올리는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차동문은 포 모교 야구시합마다, 부산까지도 원정 응원을 가는 열성파로 소문나 있다. 『어쨌든 응원을 못가면 신경이 온통 그리 쏠려서 도무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계속 운동장에 전화해서, 지금 타석에 누가 들어섰느냐까지 알



<18>

### 5형제 동국인

- ◇朴大奭 (60화학·작고·前유창토산품代表)
- ◇朴基石 (61법학·문수업)
- ◇朴大赫 (63생물·홍창代表)
- ◇朴大鉉 (64사학·삼성상회)
- ◇朴大燁 (69농경·삼성상회)

「한 가정에 우리 집처럼 東國인 수가 많은 경우도 드물겠죠」라고 말을 여는 朴大赫 (63생물) 동문가족은 5형제 모두 동문인데다, 4촌이내의 同門만 12명. 특이한 불교신자인 신 부모인 朴永根 (74차) 금간남 (75차)씨에게서 5남 3녀중 5남을 모두 중립학교에 입학시키셨고, 『그러다보니 사촌형제·조카들까지 다 東國과 인연을 맺게되어 「한 타스」가 된 셈』이라고 너털웃음.

고종사촌 韓昌燮 (60화학·상업) 張正根 (70무역·작고·前삼호물산전무) 동문, 조카 金永壽 (79농생·광동여고) 金永壽 (82전산) 동문, 큰처남 柳在深 (58물리·在美), 둘째 처남 柳在厚 (65영문·상업) 동문, 그리고 장녀 恩英양이 올해 국사교육과에 입학함으로써 막내동국인이 되었다. 恩英양의 입학시에는, 부인 柳重玉양이 자신의 모교인 激大의 입학원서를, 朴大赫동문은 모교 원서를 각각 구입해다 놓고 한세 달다름까지 했다고.

고 3인 長男도 꼭 모교 후배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朴동문은 『동문들이 집수가 조금 모자라는 아이들의 모교 진학에 해력달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집수 좋은 아이들을 모교에 보내야 東國이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지론. 물론 대학특성을 무시하고 집수에 따라 입학하



### ‘집안모임이 곧 同門會’

◇아버님 朴永根옹의 화갑사건. 뒷줄 좌측부터 朴大燁 (한 사람건너) 朴大鉉·韓昌燮·朴大赫 (건너) 朴基石·朴大奭동문 이어 맨줄 좌측 첫번째 朴恩英양. (왼네는 朴大赫동문)

시절들도 좋아져서, 요즘 후배들은 다들 훌륭하고 신렷이더군요. 학과동창회도 나가보면 60년후반이나 70년대출생들이 각계에 진출해있는데 어릴때 선배로서 부끄럽기까지 해요.』

『하지만, 동란직후까지만 해도 盜賊生들도 문전시문을 이루어인데 비하면 아직 모교 발전은 미진한바가 없지않고, 또 좀더 발전할 기회도 많았던것 같아요. 구내인쇄소도 원래 일간신문사로 발전시킬 정계획이었던 걸로 알고있고, 그밖에도 목동 기숙사나 실습농장 등...비중은 캠퍼스의 현실정도를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ROTC 1期生인 朴大赫동문은 재학시 연합학회 회장으로, 당시 鄭斗石총장과파의 대담을 통

아야...』 재학시절엔 럭비부가있었는데 대부분은 시계에만 구경했었다며, 요즘 야구부의 연구는 우승은 「정말 살 맛 난다」고.

3월제가 동시에 東岳을 오르내리던 시절도 있었다면서, 「당시 白色 총장님의 월요강좌는 지금까지도 야구부의 영의 교훈」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학교 홍보활동도 좀 적극적이면 좋겠고, 우수신입생및 교수유치도, 장학금도, 기숙사도, 또 80주사업도... 이 코끼리가 족들의 모교에 대한 바램은 끝이 없었고, 또 그것은 뜨거운 동국애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열혈동국인이 있는한 모교나 본회의 앞날은 밝기만 하다. <洪>



### 支部消息

## 美北加州 동문회 定總 金厚吉 회장 선출

美北加州동문회는 지난 5월28일 삼호총 (오를랜드 소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金厚吉 (41해전·北加州불교신도회장) 동문을 선출하는등 임원개선을 갖고 회황선화했다.

한편 동회는 최근 레슬링 선수단으로 羨美한 동문들의 환영회를 갖는 등, 지역리에서도 뜨거운 동문애로 굳게 결속해있다.

▲회장=金厚吉 (41해전·북가주佛敎신도회장) ▲부회장=孫壽男 (66법학·사업) 河善伊 (71법학·사업) ▲총무=이석우 (三煥企業 출장소) ▲재무=姜信秀 (76전자·사업)



▷鄭在哲 회장이 기증한 골프우승컵. 오른쪽은 吳在根 전회장. 왼쪽은 孫壽男골프회장.

### 鄭在哲회장에 감사패도

한편 同會 골프회 (회장=孫壽男·66법학)는 최근 본회 鄭在哲회장에 감사패를 보내왔다. 吳在根 (前특가주총동회장) 동문이 방한길에 본회 사무국으로 정답하 이 감사패는 자년 訪美했던 鄭회장이 동회의 골프우승컵을 기증한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고 있다.

매년 4회 이상 골프모임을 갖고있는 동회는 鄭회장이 기증한 컵은 영구보관하고, 모포를 매년 제작, 우승 동문에게 수여하고 있다.

### 시카고 동문회 정총 회장에 尹應謨 동문

美 시카고동문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尹應謨 동문을 부회장에 郭炳巖 (65경외) 동문 사무국장에 文英男 (68식공) 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동회는 오는 7월14일 가족동반 야유회를 또한 8월 4일에는 골프대회 (토너먼트)를 각각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全南, 신입회원 환영회

영전동문 축하도

全南支部 (회장=崔聖鏞·52국문·光州敎大학생)는 지난 5월 7일 金在鏞·李周炯·姜全熙 동문등 3명의신입회원 환영회를 배풀고, 동국인의 긍지로 회황선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사장으로 영전한 金在鏞 (63경제) 동문, 농어촌개발공사 光州지부장으로

영전한 李周炯 (65경제) 동문, 대한보증보험 광주지점代理 姜全熙 (78경제) 동문등 최근 全南지역으로 발령받은 3명의동문을 환영하는 이자리에는 同會 이사등 임원 다수가 참석 「萬里同好」하는 동국인의 결속의지를 다졌다.

### 부산東國會 정기총회 黃龍雲행장환영 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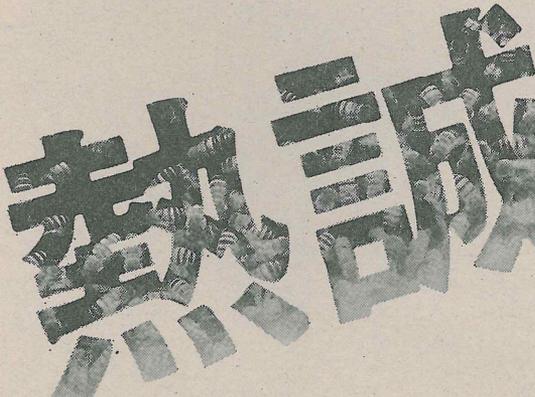
부산 동국회 (회장=南基禎)는 지난5월28일 시내「남정」에서 총회를 열고, 南基禎회장을 현임원진을 전원 유임시키고, 회 황선화했다.

매일 28일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는 동회는 3월28일에는 부산은행장에 취임한 黃龍雲 (54경제) 동문의 환영모임을 겸한 월례회를 가졌으며, 4월28일에는 부부동반으로 경주로 야유회를 가지는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 ◇임원직 명단
- ▲회장=南基禎 (57법학·善花女商교장)
- ▲부회장=金鍾燬 (51경제·부산市 택시조합 전부이사)
- ▲총무=鄭學敎 (62경제·東國商社대표)
- ▲감사=金大商 (56정치·울산 MBC 상무이사)

### ‘아내들도 준동국인, 순천동문회 활성화짐

순천동문회 (회장=朴龍龜)는 지난 5월31일 시내 「서예실」에서 순회회를 갖고, 앞으로는 부부동반 모임을 원칙으로 해서 회 황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고급인쇄’ 라면 저희 동명을 記憶하십시오. 선택하신 후의 모든것을 熱과 誠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깔끔한 인쇄— 선명한 인쇄— 동명은 새로운 차원을 향한 인쇄연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인쇄의 선구자  

 東明印刷  
 代表 禹昌昱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67-116  
 TEL 266-6323, 267-6313, 274-7081







# 개교 79주년 기념 「목멱 대제전」 盛了

## 「民族·民衆적인 축제」 표명 內實에 역점, 양상 바뀌어



▷개교 79주년 기념 「목멱 대제전」이 大學人의 새방향 정립과 東國人의 일체감 확인을 위한 행사가 주목을 이루었다. 사진은 大東民國 模의 대통령선거 장면.

급년부터 양상이 대폭 달라진 축하행사와 더불어 축제인 개교 79주년 기념 「목멱 대제전」이 1일 민족해방제를 끝으로 4일간의 행사를 모두 마쳤다.

자오로 「民族해방 民衆해방의 빛날아라」라는 기치로, 예년 의 소비·판락적 행사가 탈피, 사회전반에 걸친 신랄한 풍자, 전통과 민속재현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취, 민주열망과 민중공동체 문화의 장

단동 大學人의 새방향 정립과 東國人의 일체감 확인을 위한 행사가 주목을 이루었다.

10년만에 부활한 총학생회가 주관, 명칭부터 「東國祝典」에서 「목멱 대제전」으로 바뀌는 등 民族·民衆적이고 東國人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축제로 이질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하였으나, 행사내용의 획일성 등으로 참가인들이 지었던 집, 참가학생들의 질서의식 부족 등이 문제로 남기도 했다.

첫째날 「와서모여 하나가되리」 둘째날 「우리 결코 변하지 않으리」 셋째날 「끝내는 할절이 하나가 되여」 마지막날 「우리 승리하리라」 등의 주제로 진행된 79주년 축제의 특색적인 행사로는 공매도 민족층에서의 씨름대회·과거제·전통의식재현 놀이마당·놀이마당놀이마당등과 역사재민식 심포지움·모의농민재현·방송제·민주화 출발 동서남북·가장행렬·민족교육 강연회·大東民國 模의 각종당 장악대회 및 대통령선거 등이 있었다. 6월 1일 민족해방제 (폐막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 의과대학 신청중, 총장·총학생회 공개 간담회서

## 「총장·총학생회 공개간담회」가 지난 16일 오후 4시부터 黃壽永총장을 비롯 각실·처장과 총학생회장 학생들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중요사항과 학교측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의 질체원인과 발전방향 모색=근래에 많은 양적팽창을 이루었으나 앞으로 내실을 기하겠다고. 첫째요인은 「재단과 전 불교도의 단합문제」와 부출신 총장이 업무과외에 많은 시간필요로 「합리경영의식」 등을 들 수 있다. 내년중 의과대학 신설과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올해 당국에 인가 신청 및 66억원의 재원확보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지난 4월부터 한국생산본부에 용역을 주어 조사사업을 진행중으로 7월말경 서적으로 출간예정.

▲재단의 낮은 기여도 문제=현재 학교재정은 90%이상 학생등록비에 의존, 재원의 자산 평가는 1천1백80억원에 이르나 약10%정도의 증산으로 가용자원으로의 활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회 대지 매입」 「동국관 예비공 계획」 「다량한 시설확대」 등을 계속중이 있다.

## 대학원학생회 創總 초대회장에李在弼씨

母校 「대학원 학생회 창립총회」가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동국관에서 1백50여명의 院生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초대회장에 李在弼(가운데·3학기) 씨가 선임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양정모(수하·3학기) 학생회 준비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당선위원장 겸 학생회장을 인사를 통해 「대학원회보·학술지발간, 열람실 정비 및 활동, 학술교류 원성복지 개선 등을 위해 힘써라」고 당부했다.

## 중·고생 과학작품공대 특설전시장에

「제3회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과학·아이디어 작품 전시회」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母校 공대 특설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날 공모전에서는 총 34작품이 응모, 인사를 통해 최우수상 박창용(충남고 2)군의 「자동차 엔진 디젤엔진」을 비롯, 13점이 入賞했다.

## 18日 東大新聞社 주최 전국교직원발간장 盛了

개교79주년기념일 東大新聞 창간35주년기념 「제23회 전국교직원 발간장」이 지난 18일 오전 11시부터 母校 模관강의실에서 열려 詩, 時調, 隨筆, 小說 등 4개부문 1차선인 1선자 1백여명이 참가, 文才를 겨뤘다.

이날 1선자는 ▲詩部 장원=배우명 (정의고 1) ▲소리 ▲時調部 장원=서한기 (부사고 3) ▲「호수」 ▲小說部 장원=김현진 (정의고 2) ▲「남비」 ▲隨筆部 장원=최은숙 (경기고 2) ▲「내마음의 우산」 등 16명이었다.

## 母校職員人事

▲학생처 학생과장 白宇燾(예산초정교장) ▲예산초정교장 崔昌福(기초정교장 예산초정교장) <경주캠퍼스> ▲총무부 경리과장 河源 (한성외 합성과장) ▲학부총 학사과 ▲총학생회 부총장 ▲洗禮 과장 ▲교과 ▲權大翼 과장 ▲부 ▲宋益均 총무과 ▲林栢敏 한외과 과장 ▲李鎭熙 기숙사 ▲韓栢濤 관제 ▲成日燾 문리대 과장 ▲薛永植 한외부위 서무과 ▲朴秉희 한외부위 관리과 ▲鄭俊愛 총무과

한편, 박물관에서는 개교79주년 기념행사에 인연으로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瓦磚特別展」을 열었다.

이전 전시회에서는 「기원과」 「연화문사막사와강」 「비진문안막사와」 「보상화문진」 「해인사 금강명경기」 등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대표적 작품들이 선보였는데, 黃壽永총장의 소장품 43점을 포함, 총 80여점의 작위가 전시되었다.

# 고교 핸드볼대회 개막

## 제 1회 총장기 전국 12개팀 참가

「제 1회 동국대 총장기」 개막 전의 경기에서는 참관여과가 식민회선수의 활약이 힘입어 21대17로 승리 시전을 장식했다. 한일 주니어 종합경기 파견대 포럼 선발전을 겸한 이번대회는 전국유일의 전국규모 고교핸드볼대회로, 남녀 각 6개팀이 풀리로 대패권을 가리게 된다.

이날 개막식에서 黃壽永총장은 대회사(金부총장대독)를 통해 「경주캠퍼스에서 전국규모대회를 갖게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이대회가 86·88대회로 이어지는 등 한국체육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막식에서 이날 여고부 첫경

기인 참관여과와 총남동방여과의 경기에서는 참관여과가 식민회선수의 활약이 힘입어 21대17로 승리 시전을 장식했다. 한일 주니어 종합경기 파견대 포럼 선발전을 겸한 이번대회는 전국유일의 전국규모 고교핸드볼대회로, 남녀 각 6개팀이 풀리로 대패권을 가리게 된다. 한편, 이날 경기가 열린 체육관은 지난 8월24일 착공되어 총공사비 7억6천만원이 투입, 지난20일 준공식을 가진 연건별 1천12명의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1천2백여명의 수용이 가능하다.

31일 오전10시30분부터 본관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렸다.

佛紀 2529주년을 맞아 봉축행사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 禪사상의 신앙 논리와 생활적 측면의 재조명을 목적으로, 李錫冠(교대원장) 스님의 「禪과 信仰」, 徐廣洙(인철과) 교수의 「禪과 論理」, 陸楨植(불교과) 교수의 「禪과 生活」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주제토론이 있었다.

## 「新羅文化」제 1집 발간

慶州 신라문화연구소 경주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에서는 지난81년부터 4년간 열린 「신라문화와 신라지음」 발표논문들을 엮어 「新羅文化」 제 1집을 발행했다.

이번 장간호에는 黃壽永총장의 「신라 범종과 판사지 설화」 논문을 비롯 신라문화에 관한 8편의 교수가 실려 있다.

## 개교기념 「국악대제전」 박물관 「瓦磚특별전」

개교79주년 기념 「國樂大祭典」이 지난 7일 중앙강에서 열려, 국악 趙相賢을 비롯한 국내명창 4명의 독창과 趙南姬씨의 가야금병창, 범소연이 및 농악, 승무등의 순서로 다채롭게 진행되어 많은 관심을 보였다.

## 2529주 부처님 오신날 모교, 범요식등 행사

佛紀 2529주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母校에서는 佛陀가 이 땅에 오신 잠꼴을 기리고, 한국불교의 전체·외국인 모습을 알리고, 민중불교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함께 전통적인 화합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가 열렸다.

佛誕 2529주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리는 제등행렬이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여의도광장을 출발, 마포, 서대문, 광화문, 조계사에 이르는 약 8km의 구간에 걸쳐 母校生 7백여명 을 비롯한 20만신도가 참가한 가운데 열려, 이날 母校生들은 대형 白象과 5백여개의 연등을 앞세우고 찬불가 등을 부르면서 부처님의 慈悲와 光明을 온 누리에 밝혔다.

또한, 지난 27일에는 「釋誕日 봉축 범요식」이 黃壽永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각원에서 奉行되었다.

## 佛敎학술세미나 개최 「현대사회와 禪의 방향」

母校이 불교학술연구회 주최 「佛敎학술 세미나」가 「現代社會와 禪의 方向」이란 주제로

自然을 더욱 아름답게... 六大洲·五大洋을 向해!

● 사무실 이전 확장

동호대교  
경주체육관  
신라호텔

독립집 〇

신도 5D 5F

동국대학교

〇 엔비서터호텔

※ 東大入口 장흥로단로

佛敎聖地 巡禮 專門  
인도·네팔 四大聖地 巡禮旅行  
네팔히말라야 秘境 / 트레킹案内  
東國人 환영

西遊旅行

代表 吳仁煥

(273) 549668

한달에 한번쯤 山을 찾아...

東國山岳會, 全동문 참여의 「月例山行」 시작  
매월 3째 日요일... 회비 5천원, 전화 신청

東國山岳會(회장=鄭鎭水)에서는 전국인의 결속과 건강관리를 위해 全동문을 대상으로 월례산악회를 열기로 했다.

휴일이나 인산인해를 이루는 근교를 벗어나 중부지방의 山山들을 차례로 등회하며 한달의 피로를 씻게 할 것. 등회와 월례산행은 동국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회비도 1천 원 5천원으로 저렴하다. 申仁煥(79 전산) 동문이 대표로 있는 OEC관공회의 안내를 받거나 동국대 교내 파산한 정을 나누면서 한달동안의 피로한 정을 풀고 건강관리도 하는 一石二鳥의 기적이 많은 동국인이 동참을 바란다.

山行거리도 일반동문에 부담이 없는 1시간 남짓한 도보코스뿐이다.

(부부 동반 및 각급 동우회 단체참석 환영) 신청 지점: 매월 1일 오전 8시 모교 불상암(경주시 무문주차장) 8시 10분 서울운동장야 (자가용이용 많을 시 교통편리)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편리한 출발지점으로 집결하면 된다. (서울 귀경시간 오후 7시경) 오는 6월16일(日) 하계 산행은 명지산(가령부근)이다. 신청은 매월 출발일 1주일 전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 연락처: 산악회 회장 鄭鎭水 (동명화점) (주) 592-2255 ▲ 동부회관 金文煥 (67농생·明進산사) 267-0716 ▲ 동국대 동문부재시 여직원에게 신청하시면 됨

어... 자네도 우리 동문이었군!

또 탄생...성북구 동문회  
○최근 창립된 성북구 동문회는 회장조지이 대부분의 서울시에 지역조직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인데 물론 강남구 동문회가 있지만 활동이 뜸한만큼 더욱 돋보이기도.

지게 보자, 학생회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던 회기를 거꾸어 보관해왔던 것. 수소문 끝에 출병식 하루 전에야 회기의 행방을 알아낸 17대 총학생회장 池在鵬(인철 4) 군과 東大新聞社(기자)의 방문을 받은張동문은, 그날 밤새 새 집안을 구석구석 뒤져 새벽



東同動대동창회 활동직인

開業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가 우연히 동문임을 알게 된 金榮一·金光鎬 두 동문이 의기투합, 평소 알고지내던 동문들과 뜻을 모아 창립되었다는데 창립총회에서 난 동문들은 『어! 자네도 우리 동문인가』 하고 마치 이산가족 상봉같은 해프닝을 빚기도.

「나만」의보물, 「우리」의보물  
○지난 4월, 10년만에 부활된 총학생회 출범식에서는 75년 당시 사용되던 총학생회 회기의 전달순서가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

3시에야 회기를 찾아냈다고. 『하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여러번 이사 다니는 데, 신상이 소홀했던 것 같아 죄송』 하다고 겸양하지만, 張 동문이 아니었으면, 『쓰레기 통 신세를 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

10년 동안이나 회기를 보관해오던 張敬洙(77농경) 동문은 『언젠가는 총학생회가 부활되리라 믿었으나,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소감. 75년 총학생회장에 임명되었던 張동문은 선거를 보지 않았고 학교도 국당단체로 변질, 한동안 학생자치활동이 마비상태에 빠

모교당국에서도 개교80주를 앞두고, 각종 역사자료를 소

「가슴 앓는 東岳」이라니군요.

장하신 동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으니만큼, 우리 모두 『집안의 보물』을 東岳의 보물로 내놓아서, 80년 전통의 찬란한 상징으로 삼읍시다.

모교 야구부원들의 奮行

○...지난 봄, 大學야구 정상을 재확인하면서 6만동국인 모두에게 「頂上정복」의 흥쾌함을 안겨줬던 모교야구부 선수들이 頂上의 선수들다운 깊은 友情·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여줬다.

애기인숙 지난번 전국제패의 수훈장이었던 3관왕 白仁浩군이 어머니가 2년전부터 고생하던 심장판막증과 위염으로 발병, 군산도립병원에서 입원했다가 가정성정으로 퇴원, 의할머니의 간호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金平鎬주장등 야구부원들이 날뛴고 나서 일일차집을 여는 등 세경대로 「가슴앓는 東岳」을 보여주고 있다고.

모교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은 「큰 도움이 아 되지 않았지만 그저 지켜보고 있거라 한 기쁨엔 너무나 인타가와서...」라는 야구부원들의 異口同聲만 들어봐도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지는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新지안내

지침서 「山岳스키」

金在澤 동문

金在澤(49文學) 동문이 山岳스키의 모든 것을 담은 책 「山岳스키」를 펴냈다. 재학시 초대 山岳회장·초대스키부장을 역임하기도 한 金동문은 東國이 자랑하는 알피니스트로서 이 책에는 우리 국토의 「위치·지형·야생동물분포」에서부터 투어스키의 실제 1·2, 장비와 휴대품, 독도법, 기상 등에 대해 자세히 나타내었다.

「우리 문학의 論爭史」

洪申善 동문

시인이며 문학평론가인 洪申善(70국문) 동문은 최근 「우리 문학의 論爭史」라는 책을 엮어냈다. 해방직후부터 80년까지 문화논쟁사를 순수-참여론을 중심으로 정리해낸 이 책은 「생각과 생각의 견본」인 논쟁사를 6부분으로 나누어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洪동문은 65년 현대문학계 추진으로 데뷔, 4권의 시집과 시론집 「瓊華와 鶯語」를 내놓은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으며, 현재 水原大 교수로 재직중.

(역) 715-3150 <語文閣간> 567면·5,500원>

수필집 「女體의 美學」

李桂鎬 동문

李桂鎬(62국문) 동문은 최근 수필선집 「女體의 美學」을 출간해냈다. 현직간학의사이면서도 文協이사·수필가협회 부회장을 맡고있는 등 창작활동에도 분주한 李동문의 3번째 수필집인 이 책은, 여성의 신체 부분부분에 美學의 조명을 가하고 있다. 李동문은 『수필이란 쓰기 쉬운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가져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詩集 「물」의 攄

金扛泰 동문

金扛泰(81국문) 동문이 작품생황 7년만에 첫시집 「물」을 내놓았다. 東國文藝創作教室 1기생으로, 재학중인 78년 제7회 韓國文學 신인상에 당선된 뒤에 데뷔한 김동문은 전반적인 작품체에서 「삶의 내밀한 깊이와 체험에 대한 감성의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병문가 兪漢根동문은 해설에서 『새로운 언어인식을 통한 시어의 탐구가 계속될때 그의 시는 현대시의 전위적 위치로 나아가게 될것이며 그가 위하는 「탐미」의 정상에 이를게 될것』이라 밝히고 있다. 현재 덕원여고 국어교사. <정하刊> 120면·2000원>

鄭飛石長篇小說

小說 孫子兵法

春秋戰國時代, 그 난세의 영웅 호걸들이 다채롭게 펼쳐는 장엄무쌍의 일진일퇴! 한국 소설 문단의 거목 鄭飛石이 성공의 지혜를 설파한 현대인의 성전!

전하명장 孫臏과 그의 손자 孫臏, 제세의 호걸 오자서와 경국지색 서시 와신상담으로 아랑과 복수의 길을 가는 5패16국의 제왕들, 그 회대의 영웅 미녀들이 엮여가는 흥망성쇠와 이합진산의 드라마를 통해 인간사의 참리를 새삼 깨우쳐 주는 감동적인 小說.

孫子兵法는 단순한 兵書가 아니다! 케케묵은 옛날이야기도 아니다! 차원높은 처세의 비법을 깨우쳐 줄 재미있고 유익한 小說 孫子兵法! 소설 손자병법은 합리적인 기업경영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상사의 질리를 터득하여 성공의 지름길을 찾게 하신다. 바로 당신이 읽으셔야 할 현대인의 성전입니다.

小說 楚漢誌

鄭飛石이 내놓은 또 하나의 인생 교과서! 지혜로운 삼을 위해 현대인이 읽어 써야 할 성공의 지혜가 넘치는 장엄하고 웅대한 대하소설 小說 楚漢誌! \* 鄭飛石이 내놓은 또 하나의 인생 교과서! 지혜로운 삼을 위해 현대인이 읽어 써야 할 성공의 지혜가 넘치는 장엄하고 웅대한 대하소설 小說 楚漢誌! \* 鄭飛石이 내놓은 또 하나의 인생 교과서! 지혜로운 삼을 위해 현대인이 읽어 써야 할 성공의 지혜가 넘치는 장엄하고 웅대한 대하소설 小說 楚漢誌!



鄭飛石 著

小說 三國志

\* 男자가 뜻을 세우고 여자가 세상을 읽을기가 막힌 妙案이 곳곳에 도사려 있는 小說 孫子兵法의 作家 鄭飛石 小說 三國志! \* 鄭飛石이 내놓은 또 하나의 인생 교과서! 지혜로운 삼을 위해 현대인이 읽어 써야 할 성공의 지혜가 넘치는 장엄하고 웅대한 대하소설 小說 楚漢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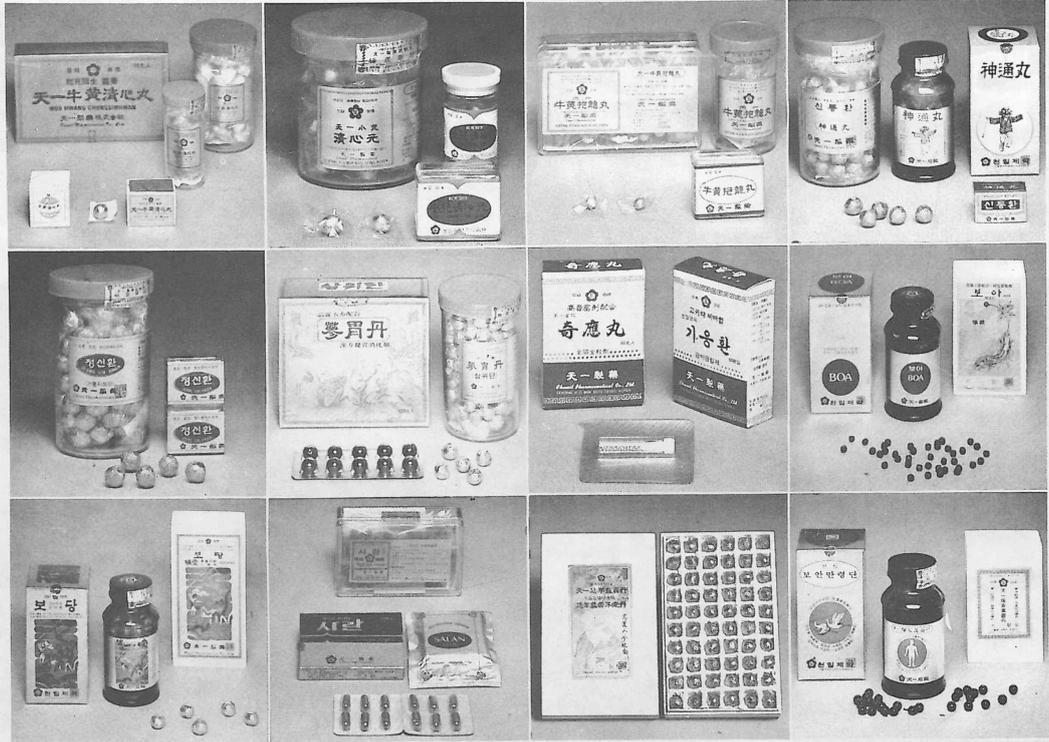
고려원

서울·종로구 수송동 46-22 서울 중앙사서함 제 6622 호 영업부: (744) 7741 ~ 3 권립부: (730) 8082 ~ 4

# 天 一 製 藥 (株)

100년 전통의 천일제약은 우수한 한방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天一의 등록상표는 100년 전통을 이어온 신용의 상징이며, 천일제약의 제품은 한의시중 필수적이고 고귀한 한방치료제로서 고귀 생약계 등 천연원료만을 정선, 법제화하여 사용하였으며, 동양의약계에서 공인되는 의사의 처방을 기본으로 하였고, 새시대 보건 한국을 위해 보건의약품도 개발·생산하고 있습니다. 천일제약은 전통과 경험, 신용을 바탕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다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사불성·정신혼수·중풍치료제 100년 전통의 신비의 영약	소아제열·경풍 소아용 가정상비약	소아의 간기·급경풍·청변·구토·설사 天一의 제품은 성분과 효능으로 보증합니다.	한방담증·마비·신경통치료제 신경통에 신통하게 잘 듣는
天一 우황청심환	天一 소아청심원	天一 우황포동환	天一 신 통 환
용매한 정신·중풍·풍열 치료제 용매한 정신을 상쾌하게	위약·위무기력증·위하수증·소화불량 고려인삼배합 건위소화제	소아의 토유·경기·소화불량 새 생명의 건강을...	식욕부진·편식·빈혈·수척·간장치료제 고려인삼·ALOE 배합
天一 정 신 환	天一 삼 위 단	天一 기 응 환	天一 보 아
피로회복·다뇨·빈뇨·하지풍·마비치료 중·노년 필수한방의약품	월경불순·수족냉증·두통·두중불면증 건강한 여성의 상비약	심장·신장·장간의 기능강화제 왕성한 체력과 심신한 젊음은...	중풍증·신경통·마비증·일체담증치료제 고귀약제배합의 중풍 신경통치료제
天一 보 당	天一 사 란	天一 연년익수단	天一 보안만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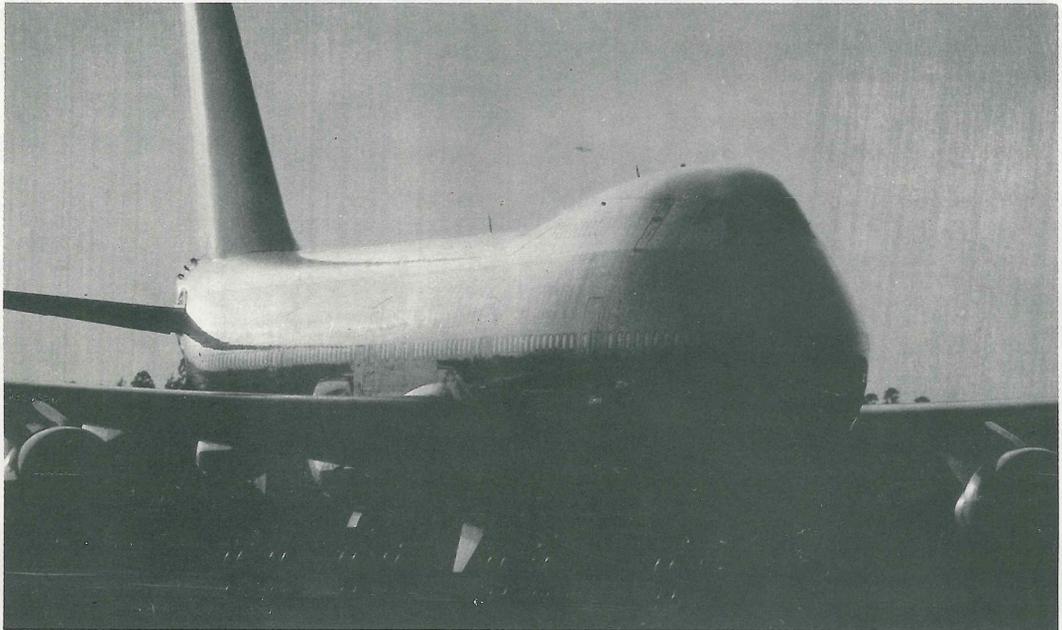
## 天 一 製 藥 (株)

營業本部 : 서울特別市 麻浦區 東橋洞 173-14  
 TEL. 323-1101~2, 0300, 3900  
 中央研究所 :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4-35  
 TEL. 784-0300, 0400  
 第1工場 : 京畿道 水原市 梨木洞 290 TEL. 5-9025  
 第2綜合工場 : 水原市 芭長洞 81 TEL. 5-0022, 1002, 6-0343  
 서울中央郵便局 私書函 6070號 TELEX K 24511/1001 CO.  
 CENTRAL P.O. BOX 6070 SEOUL, KOREA

代表理事 韓 相 根

6월 6일부터,

# 로스앤젤레스 논스톱 항공편 취항



드디어 노스웨스트 항공에서 오는 6월 6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논스톱항공편을 새롭게 운항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로스앤젤레스행 논스톱항공편을 이용하시면 다른 어떤 항공편보다 가장 이른 시간인 오전 10시 40분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하므로 미국현지에서의 보다 알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스웨스트항공은 씨애틀, 사카고 논스톱에 이어 로스앤젤레스 논스톱항공편을 추가로 운항하게 됨으로써 가장 많은 미국의

3대 주요 도시로의 논스톱편을 운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스웨스트항공은 한국인 여승무원의 친절한 서비스와 더불어 이코노미 요금으로 익제큐티브 클래스 서비스는 물론, 무료여행 프로그램의 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로스앤젤레스 논스톱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 50여개 도시까지 편안히 모셔드리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 명실공히 미국 제1의 태평양 횡단 항공사입니다.

로스앤젤레스	3:40 pm	10:40 am	로스앤젤레스
	1:45 pm	12:15 pm	사카고
	4:15 pm	10:00 am	씨애틀
	4:00 pm	4:00 pm	뉴욕
	11:50 am	1:30 pm	샌프란시스코
9:00 am	9:00 am	호놀룰루	

## 이제부터 노스웨스트 오리엔트입니다.



예약은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로 해 주십시오. ● 조선포털(서울) 753-6106/9, 755-0416/7, 777-9786 ● 롯데호텔(서울) 778-8240/1 ● 힐튼호텔(서울) 752-2394/5  
 ● 소공사무실(서울) 778-0181/7 ● 반도호텔(부산) (051) 44-2240